



## 바람직한 간호원의 像

李 興 烈

〈淑明女大音樂大學長〉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 어느 텔레비전에서 간호원들과 병자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화면(畫面)이 나온다.

사실 그렇다. 간호원의 사명은 환자들과 더불어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야말로 상대자의 전부를 감싸주어야 할 위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위대한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하고 피로움에서 허덕이는 불행한 환자를 돌보아주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못하고 봉사하고 있는 그 정신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

6·25때 한참 피란길로 남으로 남으로 내려갈 때 수많은 국군과 U·N군의 부상병들이 앰블런스 혹은 병원선이나 기차에서 들것에 베여 일선으로부터 후방으로 옮겨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노고(勞苦)라는 것을 나는 내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간호원이란 직책 위생병이란 직책이 얼마나 귀하고 무겁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보았다.

전부터 백의의 천사로 불리워지는 이 간호원들이야 말로 불행한 환자들의 마음의 천사가 아닐 수 없다. 권력과 명예와 부(富)에 아첨하기 쉬운 이 세태에서 멀리 떠나 고통과 빈곤과 참혹속에서 허덕이는 병자들을 위하여 가장 친절하고 애정으로써 그들의 알낯에 위로와 희망을 안겨다주는 그야말로 혼미(混迷)한 세파(世波) 속에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들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적인 자세가 필요하겠고 둘째로는 여러방면으로의 교양이 필요하겠다.

지금 저 그림처럼 그들과 노래도 함께 불러주어야 하겠고 책도 함께 읽어야 하겠고 재미있는 대화의 환경속에서 그들을 심리적으로 우선 안정과 사색의 세계로 유도해야 하겠다.

요사이 모든것이 물질적으로 치우치는 나머지 중요한 기본자세가 흔들리는 일이 적지 않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직업적인 경향으로 그 숭고한 이상과 사명을 잘못 흘러보내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인력수출의 해외진출이 외국에서 가장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한국 간호원들의 그 공격을 치사하는 동시에 만의 하나라도 이같은 봉사와 희생정신에 입각한 자세를 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열 증에 아홉 잔하는 것 보다 하나의 실수가 그 아홉에 모든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백의(白衣)의 뜻 그대로 우리는 깨끗하고 맑은정신 그대로를 그들앞에 전개해야 하겠다. 그것은 비록 환자들이나 국한된 환경에서뿐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등불이 될 기본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남북적십자 회담은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다주고 있다. 온 세계는 우리의 민족성과 투지와 의지를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는 주위에 더러운 것이 혹시나 있지 않는가 주위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남북적십자회담에 해를 줄 병균이 숨어있지나 않는가 진단을 받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자유와 평화의 값비싼 민주신호에 분방과 허영과 허식과 낭비와 모략비방등의 해독균(害毒菌)이 칠투되어 있거나 않은가 한번 반성해볼 때이기도 하다.

바로 오늘날 간호원의 사명과 자세는 이러한 환자들을 하루빨리 치료해야하고 그 환경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전환시킨 거룩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언제나 외적인 사색에 눈길을 모으기에 앞서 보이지않는 내면적인 속을 현미경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해로운 것이 있으면 용감하게 해부하고 그들로 하여금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다. 아무리 원수라도 죽을 그마당에서는 적십자정신으로 살려야하는 그 정신을 바탕으로 간호원 여러분은 형식적인 직업여성의 자세를 떠나서 어디까지나 불행한 하나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이 크고사명의 달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은 천하를 주고도 네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성구의 말 그대로 그들의 생명은 귀중한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한 것은 영원히 살아야 할 영적인 생명이다.

“호랑이도 겁전을 남겨놓고 죽는다는데”하는 옛말과 같이 우리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쯤은 남겨놓아야 할 것이 아닌가? 다른사람이 보기에는 건강체인 것 같으나 실상은 자기만이 쓰러린 고통을 당하는 환자들이 많다.

이것을 빨리 고쳐버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자기도 알지못하는 병균이 숨어있는 사실을 발견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제3자를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천사의 사명을 받고 지상(地上)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은 곧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인 구세주가 되어야할 것이다. 일은 적은데서부터라고 했다. 여러분의 그 자그마한 정성은 결국에 있어서 이 땅위에 낙원과 천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사업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직책이 좋은가지와 얹이 되어 하루빨리 이나라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좋은 열매가 맺기를 바란다.